

# “코스피 최고 2400 예상… 반도체 업황 회복이 관건”

## 2020증시 전문가 전망

기업 284곳 내년 영업이익 168.5조  
올 전망치보다 26% 늘어난 수준

추천 종목으로 ‘경기소비재업종’  
“소재·산업재·자동차 편향을 것”


국내 증시가 미·중 무역협상 낙관론 확산으로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증권가 전문가들은 내년 증시가 올해보다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큰 폭의 상승세는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글로벌 국가들이 완화적 통화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점에서 경기관련주를 주목해야 한다는 조언도 나왔다.

6일 메트로신문이 국내 증권사 5곳(신영증권·SK증권·하이투자증권·현대차증권·BNK투자증권)의 리서치센터장을 인터뷰한 결과 내년 코스피 상단을 2400으로 전망했다. 올해 코스피 밴드는 1900에서 2200포인트에 머물고 있다. 올해보다는 다소 회복되겠지만 연 초 달성했던 최고치인 2600선 돌파는 힘들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실적회복 기대가 주가 이끈다”

내년 코스피 지수의 상단을 올해보다

### 리서치 센터장 증시 전망

	 SK증권 최석원	 BNK투자증권 서동필	 현대차증권 노근창	 하이투자증권 고대봉	 신영증권 김학균
코스피밴드	2000~2400	1900~2300	2000~2350	2300	박스권
리스크 요인	미중 경기 침체	경기 개선 기대감 하락	글로벌 경기 침체	미중무역분쟁 美 대선동불확실성	경기회복 강도
기회 요인	미중 무역협상	경기 개선 기대감	반도체 업황 회복	영업이익 회복	반도체 업황 회복
추천 업종	IT, 자동차, 조선, 화장품	경기 민감주, 자동차	반도체	반도체, 자동차, 통신	자동차, 통신

높게 보는 이유는 상장사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다. 실제 금융정보업체 에프엔가이드에 따르면 증권사 3곳 이상 실적 추정치가 있는 284개 기업의 내년 영업이익은 168조5524억원이다. 올해 전망치보다 26.1%가량 늘어난 수준이다.

최석원 SK증권 리서치센터장은 “국내 상장사 이익이 올해보다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주가 상승을 기대한다”면서 “다만 2017년 실적에는 미치지 못해 2017년 고점까지 도달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예상했다.

노근창 현대차증권 리서치센터장은 “내년 반도체 업황 회복이 주가를 끌어올리는 호재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했고, 김학균 신영증권 리서치센터장 역시 “반도체 회복을 중심으로 내년 경

기는 순환적으로 반등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내년 국내 증시가 ‘상고하저’ 형태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실적 개선 기대감으로 상반기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지만 하반기에는 정책 효과가 떨어지면서 실망감이 반영될 것이라 분석이다.

서동필 BNK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은 “확실히 경기 하단, 무역 지표의 저점은 지났다. 디플레이션 우려도 끝이라고 봐야 한다”면서도 “내년 하반기에는 ‘이렇게 돈을 부어도 경기가 회복되지 않는 구나’란 실망감이 나올 수 있다”고 했다.

◆정보기술(IT) 등 경기소비재 ‘주목’  
증권업계 전문가들은 내년 추천 종목으로 경기소비재업종을 꼽았다. 글로벌

통화 완화 정책이 진행되고 있고 이와 더불어 재정확대가 이뤄지고 있어서다.

서 센터장은 “물가가 바닥인 상태에서 수출 업황은 회복될 것”이라면서 “국내 수출주는 대부분 경기민감주다. 소재, 산업재, 자동차 업종이 편향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 센터장은 “경기가 바닥권에서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이 더해지면 경기소비재에 호재”라면서 정보기술(IT), 자동차, 조선 업종이 유망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그는 “석유, 철강과 같은 소재 업종은 과잉 공급으로 업황이 회복되긴 힘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기소비재 중 IT, 그 중 반도체를 콕 짚어 추천했다. 현재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업황 회복 기대감으로 52주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다.

노 센터장은 “IT 전체 보다는 반도체 업종에 주로 투자하는 게 맞다”면서 “내년부터는 반도체 업황 회복세가 뚜렷하다”고 말했다.

고태봉 하이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생각보다 수요가 빠르게 회복되고 공급이 정제되면서 빠른 재고 축소가 나타나고 있어 가격도 회복될 것으로 본다”면서 “저점을 찍은 반도체가 D램 수요 회복과 클라우드 비즈니스의 전개로 개선세를 보일 전망”이라고 밝혔다.

반면 최근 IT주는 ‘갈 때까지 갔다’는 반론도 있다. 서 센터장은 “SK하이닉스는 아직 실적이 고점 대비 10분의 1도막임에도 주가가 상당히 올랐다”면서 “이미 업황 개선 기대감은 반영됐다고 봐야한다”고 말했다.

5G 선두주자인 국내 통신주를 주목해야 한다는 조언도 나온다.

고 센터장은 “올해는 마케팅 비용으로 주가가 상승을 보이지 못했으나 마진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2020년에는 관심을 가져야 하는 업종”이라고 말했다.

김 센터장 역시 “내년에는 통신주가 5G 성장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배당 메리트(장점)가 부각되며 상승할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손엄지 기자 sonumji301@metroseoul.co.kr

## 증권 다이제스트

### KB증권

## 자산배분EMP 솔루션 발간

KB증권은 업계 최초로 한국 투자자를 위한 ‘자산배분 EMP (ETF Managed Portfolio) 솔루션’을 발간했다. 자산배분 솔루션이란 투자 목적에 따라 맞춤형 포트폴리오를 제공하는 비즈니스다. ‘자산배분 EMP 솔루션’ 발간으로 증권사 프라이빗뱅크(PB)와 기관투자자들은 상장지수펀드(ETF)를 활용한 자산배분 솔루션을 통해 각자의 고객과 각 자금의 투자목적에 맞는 최적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게 됐다. /손엄지 기자



### 키움증권

## 신종자본증권 3종 판매

키움증권은 코리안리재보험, 우리금융지주, BNK금융지주의 신종자본증권 3종을 판매마진 없이 발행금리 그대로 판매한다고 6일 밝혔다. 판매마진 없이 판매하는 코리안리재보험 제2회 신종자본증권은 신용등급 AA(한국신용평가, 2019년 9월 6일)이며 연 수익률은 세전 3.4%이다. 만기 30년짜리 채권으로 2024년 10월 22일 이후 발행사가 중도상환할 수 있는 콜옵션이 있다. /송태화 수습기자

# 시중 냉동핫도그 절반 생산... 中·日 넘어 유럽·북미 공략

## IPO 간담회

### 식품제조 전문 우양

11·13일 청약 20일 코스닥 상장  
CJ·SPC·풀무원 등 주요거래처

식품 제조 전문기업 우양이 이달 말 코스닥 상장을 앞두고 있다. 우양은 6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날까지 수요예측을 통해 11, 12일 청약을 실시하고 20일 코스닥시장에 상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992년 설립된 우양은 음료베이스 및 푸레, 가정식 대체식품(HMR)을 제조하는 식품 제조 전문기업이다. HMR 제품은 CJ제일제당, 풀무원 등의 제조 유통사에, 음료베이스와 푸레는 카페 프랜차이즈, 마트, 편의점 등에



6일 여의도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구열 우양 대표가 회사 설명을 하고 있다. /우양

기업간 거래(B2B) 형태로 공급하고 있다. CJ제일제당, SPC그룹, 풀무원 등이 주요 거래처다.

우양의 핵심 경쟁력은 일괄생산체제다. 회사는 다양한 제품의 원료 소싱, 가공, 생산 기술을 자체적으로 구축해 생산효율화를 극대화하고 있다.

이와 함께 우양은 국내 최초로 옥토프로스트 개별 급속냉동 설비와 아이스젠 냉각 설비를 도입해 음료베이스

와 푸레 제품을 생산한다. 이러한 설비는 급속 냉동으로 제품의 신선도가 저하되는 것을 최소화하고 해동 시에도 수분이 분리되는 드립 현상을 최소화해 고품질의 제품을 생산할 수 있다는 게 회사측 설명이다

우양은 지난해 최초로 매출액 1000억원을 넘어섰다. 최근 3년간 연평균 성장률(CAGR)은 13.6%다. 올해 상반기 매출액은 564억원으로 전년보다 9.2% 성장했다.

이구열 우양 대표는 “현재 시중에 유통되는 냉동 핫도그의 50% 이상을 우양이 생산하고 있다”면서 “내년 하반기 완공 예정인 신공장은 현재 핫도그 생산량의 3배 수준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 만큼 실적도 더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회사는 B2B 시장 내 기업 경쟁력을 바탕으로 자체 브랜드와 온라인 직영몰을 통해 기업과 소비자 간 거래(B2

C) 시장으로 사업영역을 확대할 방침이다. 회사 자체 브랜드인 냉동 과일 브랜드 ‘뉴프레’, HMR 전문 브랜드 ‘쉐프스토리’와 온라인 직영몰 ‘마켓뉴프레’ 등 B2C 판매망 구축 또한 완료됐다. 또 오는 11월 카페 소재 브랜드 ‘더비나인’을 추가 런칭해 B2C 유통망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HMR 신제품을 지속적으로 출시하며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 외형 성장을 극대화할 계획이다. 중국과 일본 진출을 넘어서 유럽, 베트남, 북미 시장을 공략할 계획이다.

우양의 주당 공모희망가는 3800원~4200원으로 총 360만주를 공모한다. 이중 신주모집은 240만주다. 공모를 통해 마련된자금은 HMR 신제품 라인업 강화, 해외 시장 진출 등에 사용한다. 오는 20일 상장예정인 우양의 대표주관사는 미래에셋대우다. /손엄지 기자 sonumji301@

### 〈HDC현대산업개발 연내 공급예정 아파트〉

위치	단지명	전용면적 (㎡)	총세대수 (일반분양)	공급일정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중산동 1842번지	일산2차 아이파크	74~84	214	11월
전북 전주시 태평동 123-19번지	전주 태평 아이파크	59~84	1319 (1045)	11월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320번지	청주 가경 아이파크 4단지	84	209	11월
충남 당진시 읍내동 37-3	당진 아이파크	59~84	426	11월
광주 동구 계림동 계림2구역	광주 계림 아이파크 에스케이뷰	39~123	1715 (1101)	12월

년까지 거주(2년 단위 계약)가 가능하다. 모당초등학교(혁신초), 안곡중학교

를 모두 도보로 이용할 수 있다.

/이규성 기자 peace@

## ‘일산2차 아이파크’ 등 연내 3883가구 공급

HDC현대산업개발, 5개단지 분양

HDC현대산업개발이 연내 전국 5곳에서 아파트 3883가구를 공급한다.

6일 HDC현대산업개발에 따르면 지난 1일 홍보관을 개관한 민간임대 아파트 ‘일산2차 아이파크’ 214가구 공급을 시작으로 오는 8일 견본주택을 개관하는 ‘전주 태평 아이파크(1315가구)’, 11월 말 분양 예정인 ‘청주 가경 아이파크 4단지(209가구)’와 ‘당진 아이파크(426가구)’, 12월 분양하는 ‘광주 계림 아이파크 SK뷰(1715가구)’ 등을 선보일 예정이다.

크(426가구)’, 12월 분양하는 ‘광주 계림 아이파크 SK뷰(1715가구)’ 등을 선보일 예정이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최근 ‘역삼 센트럴 아이파크’ 성공에 힘입어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산동 1842 일원에서는 민간임대 아파트인 ‘일산2차 아이파크’ 74~84㎡, 214가구를 공급한다. 단지는 지난 1일 홍보관을 개관하고 입주자모집에 나서고 있다. 계약과 동시에 입주 가능하며 이사 걱정 없이 최대 8